

# 천년고찰 도갑사 대웅보전 중창 낙성

## 4월 11일 삼존불 후불탱화 점안식도 열려

신라시대 도선 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월출산 도갑사 대웅보전이 4년여 불사 끝에 장엄한 위용을 드러냈다.

월출산 도갑사주지 월우는 4월 11일 경내에서 '도갑사 대웅보전 중창낙성 및 삼존불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삼존불 후불탱화 점안식에 이어 스님의 특별법문, 강운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및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외빈의 기념식수, 대웅보전 환관제막식, 기념법요식 순으로 거행했다.

종범 스님은 법문에서 <법화경> 권보탑품에서 고불(古佛, 법신불인

다보여래와 현불(現佛, 보신불)인 석가모니불이 함께했던 것처럼, 도갑사도 신라시대 대웅보전을 복원해 고불도량이 현재 신축도량으로 나뉜 것"이라 말했다.

육법공양 후 봉행된 기념법요식에서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도청과 영암군의 지원으로 대웅보전 불사를 진행했다. 도갑사는 전남도민과 영암군민의 행복을 위한 정신적 귀의처로 기도정진 하는 천년도량으로서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격려사에서 "도갑사 대웅보전 낙성식은 주지 월우 스님이 때로는 성인, 때로는 속인이 돼 불사에 매진한지 6년

여 만에 이룬 것"이라며 "도갑사가 중생의 시대에 항상 부처님이 머무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前 종회의장 자승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 월정사·관음사·금산사·선운사·대흥사·화엄사 등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강운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김일태 영암군수, 이석형 함평군수, 김종식 해남군수, 정동태 前 문화관광부 장관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김남수 대목수와 정규복 불모가 참여해 복원한 대웅보전은 와



1977년 화마로 소실됐던 도갑사 대웅보전이 550여 년 전인 1456년 중흥구조 그대로 복원됐다.

부 중층 내부 통층, 은간물림 방식의 244.2㎡(74평) 규모로 조성 초기 다포식 팔작지붕에 막새기와를 얹어 현대와 조화를 이룬 전통양식이

대웅보전에 모셔진 삼존불은 10m 규모, 홍송(紅松)으로 조성된 후불탱화는 높이가 6m에 달한다.

조동섭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국토를 찾아서 사회복지법인 송광 정신원

## '자비회사' 원훈... 불법서 안정 찾아

완주 송광사 종남산 벚꽃이 뿌러대는 꽃비에 눈이 멀 것 같은 봄날 오후 송광정신원(원장 우용호)을 찾았다.

정신원은 사회복지법인 송광(이사장 도영, 송광사 주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불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왔다. 정상적인 치료방법 외에 매주 법회를 통해 '마음 다스리는 글'을 읽고 한글·노래교실과 송광사에서 명상과 산책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좌로부터 이경주 사무국장, 정병호 상임이사, 우용호 원장.

송광사 신도회, 청년회와 위불사신도회, 현대자문자 불자회 등 후원자와 봉사자들도 정신원 운영에 많은 도움을

## 전국 유일의 불교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

이름으로 개신교 장로 등 타종교단체에서 운영하던 곳이다. 하지만 시설수용자들에게 노동력 착취, 구타 등 인권문제, 후원금 횡령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자 2005년 5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송광이 인수해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그간의 불신을 모두 씻고 모범적인 복지시설로 거듭났다.

정신원의 가장 큰 목표는 수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진출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실제 20여 명이 인근 기업체에 취업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우용호 원장은 "앞으로 정신원내에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과 자립생활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역의 노령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보건센터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에서 소외된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복지의 손길을 전하는 정신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회사(慈悲喜捨)의 사무관심을 원훈으로 삼고 있다.

일방적인 강요와 요구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살피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정신원은 부처님 품안의 편안한 안식처가 아닐수 없다. (063)243-1212 인터넷 카페 송광정신원(cafenaver.com/skjsv1212)

조동섭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부활절이라 불단 훼손?

### 여수 향일암 개신교인 난입 '훼불'

부활절을 맞아 개신교인이 사찰 성묘를 훼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씨의 신앙심 증명에 꺼져 나뒀던 향일암 불단.

4대 기도성지 중 하나인 여수 향일암(주지 원문)에 훼불사건이 일어난 것은 4월 10일 오후 4시 경. 개신교 신자인 정씨는 향일암 대웅전에서 물레 갖고 들어간 알루미늄 파이프로 인동 부처님과 인동 유리문, 삼존불 좌대 장식, 황금단청, 불전함 유리, 불단 유리 등을 파손했다.

정씨는 범행 현장에서 향일암 종무원들에게 의해 제압돼 여수경찰서 돌산파출소에 인계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 계시를 받들어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자 벌였다"고 진술했다.

향일암 측은 "6일과 8일에도 향일암 경내에서 징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전과가 있다. 인동관련시설

복구에 4000만원, 황금단청 및 부처님 좌대 장식 1000만원 등 피해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향일암 본사인 화엄사(주지 종삼)는 13일 "이번 훼불행위는 이웃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다. 관용과 인내의 한계조차 넘어섰다"며 "금번 사건을 계기로 여수경찰서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종교평화와 사회안정을 위해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책을 촉구했다.

한편, 향일암은 659년 원효 대사가 창건한 절로 연간 60만 명 이상의 참배객이 찾는 한국불교 4대 관음기도도량 중 하나다.

노덕현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미래의 예인 동백연서 재능 활짝

### 선운사에서 예술경연

동백꽃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의 선운사에서 4월 17일 제33회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주지 범만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동백제례를 비롯해 유치부, 초·중·고 학생들이 문화예술의 장 등을 펼쳤다.

범만 스님은 환영사에서 "예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선운사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땅이다"며 "미당 서정주 시인을 비롯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탄생한 선운사에서 미래

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연은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타악 무용 등 예술분과와 제기차기 투호 낚줄놀이 등 민속부문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부문에서는 향토문화알기, 도예, 전통매듭, 호패, 가훈쓰기 등 다채로운 경연과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편, 올해 제33회를 맞은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는 선운사 동백꽃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1977년에 고창지역향토문화인들이 모여 예비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봉축위 봉축법회

### 임실 호국장영사서



호국장영사서 모인 전북군민·장병들이 점등장엄을 발원하고 있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5월 15일 전북 임실 제6탄약향 호국장영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270여 불자장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장병여러분들이 있기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신심을 다지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한편, 원행 스님은 부대내 불교 활성화에 공로가 큰 김상근 준위와 김영호 중사에게 부대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방항성 장장은 주정기, 강석훈 포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지장대사 만발공양

여수 지장대사(주지 정현)는 4월 12일 부처님전에 만발공양을 올리는 '지장대불 100가지 음식공양 대회'와 무상 조상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정현 스님은 법문에서 "한량없는 정성을 모아 불보살님께 음식을 올리는 공양이야말로 가장 수성한 공

덕"이라며 "100가지 공양물은 자신과 사회를 위해 공력을 널리 회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장대사는 2004년부터 매년 2회(음력 3월 18일과 9월 24일) 불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을 공양 올리고, 유주무주 고혼영가와 선망부모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가 천도기도를 봉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야 역학입니다 -

12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금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정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애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가 전화로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정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의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강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증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대 한 불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성수, 도영함정